

세계적 양산의 환경적인 고품격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박지성 이달 말 돌아온다

맨유 퍼거슨 감독 “지성 있어 선수 추가 영입 안해”

박지성 부친 “12월 말 복귀 최선”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올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선수 추가 영입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퍼거슨 감독은 그 이유 중 하나로 박지성(26)의 복귀를 들었다.

4일(한국시간)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퍼거슨 감독은 “우리는 늘(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는) 1월에 큰 재미를 못 봤다. 시즌 중에 새로 합류한 선수들에게는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 파트리스 에브라와 네만자 비디치가 지난해 1월 우리 팀에 새로 왔을 때도 그랬다”면서 “현재 우리 선수 구성은 충분히 좋다고 생각한다. 박지성이 돌아오고, 미카엘 실베스트르도 새해에는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퍼거슨 감독은 “재활을 정말 잘하고 있다. 12월 말이면 될 수 있을 걸로 본다”며 박지성의 팀 훈련 합류 소식과 함께 그라운드 복귀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퍼거슨 감독은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가브리엘 에인세와 실베스트르의 부상으로 공격이 생긴 왼쪽 풀백을 맡아줄 자원이 조금 부족하지만 다른 포지션은 괜찮다”며 올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전력 보강 쪽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타임스는 레딩FC에서 뛰고 있는 잉글랜드 국가대표 니키 쇼레이가 퍼거슨 감독의 영입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한편 박지성의 아버지인 박성중씨도 이날 “(박)지성이 12월 말에 그라운드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아들의 근황을 전한 인터넷에서 “지성이 요즘엔 취미 생활까지 완전히 접고 오로지 빠른 복귀를 위한 훈련에만 매진하고 있다”며 “몸 상태나 여러가지 컨디션은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

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아마도 12월 말이면 그라운드에 복귀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1일 블랙번전에서 무릎 부상을 당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수술을 받은 박지성은 8개월 가까이 재활에 힘써 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맨유, 풀럼 2-0 제압...설기현 20분 활약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명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나홀로’ 2골을 터트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2)의 원맨쇼를 앞세워 풀럼을 2-0으로 제압했다.

맨유는 4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치러진 2007~2008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풀럼과 홈 경기에서 전반 10분과 후반 13분에 두 차례나 골 그물을 흔든 호날두의 활약에 힘입어 2-0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맨유는 정규리그 3연승을 거두면서 10승 3무 2패(승점 33)를 기록, 한 경기를 덜 치른 선두 아스널(11승3무·승점 36)을 바짝 추격했다.

풀럼의 설기현(28)은 후반 26분 교체투입돼 20여 분 동안 그라운드를 뛰어다니면서 몇 차례 위협적인 크로스를 올렸지만 골로 연결되지 않았다.

설기현은 경기 후 스카이스포츠(www.skysports.com) 선수 평점에서 ‘깔끔한 볼터치(Neat Touches)’라는 평가를 받으며 평점 6을 받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월드컵 축구 ‘코리언 더비’

월드컵축구 ‘코리언 더비’가 내년 3월26일 북한에서 열린다.

한국은 북한과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2차전을 내년 3월26일 북한 원정 경기로 치르게 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4일 대한 축구협회에 통보한 3차 예선 일정에 따르면 북한, 요르단, 투르크메

아시아 3차 예선 2차전

北 3월26일·南 6월22일

니스탄과 3조에 속한 한국은 내년 2월6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과 홈 경기로 남아공행의 첫 걸음을 댄다.

이어 3월26일 북한과 원정경기를 갖게 된다. 경기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북한 원정경기는 1990년 10월11일 평양 능라도경기장에서 펼쳐졌던 남북통일축구대회 이후 18년 만에 열린다.

한국은 이어 6월2일 요르단을 홈으로 불러들여 3차전을 갖고, 닷새 뒤인 7일 요르단과 원정 ‘리턴 매치’를 벌인다.

6월14일 투르크메니스탄과 원정 경기 후 같은 달 22일 북한을 한국으로 불러들여 최종전을 치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리그 사령탑 ‘스타 열전’

부산 황선홍 감독·경남 조광래 감독 선임

내년 프로축구 K-리그가 ‘스타 사령탑 열전’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전망이다. 박항서 전 감독이 사임한 도민구단 경남FC가 지난 3일 ‘리그 터줏대감’ 중 한 명인 조광래 감독을 선임한 데 이어 앤디 에글리 전 감독이 떠나간 수원 FC에 한동안 대행 체제를 유지해온 부산 아이파크가 4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황선홍 감독을 선장으로 앉혔기 때문이다.

조광래 감독은 1987~1993년 대구 로얄즈 감독·코치부터 시작해 수원 삼성 코치를 거쳐 1998년부터 안양 LG를 맡았고 서울로 연고지를 이전한 다음 FC서울의 초대 사령탑까지 역임한 베테랑이다.

3년 계약을 맺은 ‘황새’ 황선홍 감독은 사령탑으로는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이지만 지명도로 보면 대단한 카드다.

황 감독은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전남 드래곤즈 코치를 지내고 잉글랜드 연수, 월드컵 방송 해설자 등으로 활동했다. 지난 7월 ‘영원한 야인’ 김호 감독이 대



황선홍 부산 아이파크 감독



조광래 경남FC 감독

리아스 포항 스틸러스 감독, 월드컵 4강 사령탑으로 명장 반열에 올라있는 세를 귀네수 FC를 감독과 필철 지략대결도 내년 시즌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또 2005년 ‘공포의 외톨이’ 인친 유나이티드 돌풍을 일으킨 장외용 인천 감독이 1년 간 잉글랜드 연수를 마치고 내년 시즌부터 돌아오게 돼 벤치 싸움의 열기를 더한다.

한편 제주 유나이티드도 4일 브라질 출신 아투 베르나르데스(54·Arthur Bernardes) 감독을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계약기간은 1년이다.

1987년 지도자로 입문, 이듬해 브라질 마두레이라EC에서 감독 생활을 시작한 베르나르데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알콜라 등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클럽 지휘봉을 잡아왔다. 2007년 시즌에는 브라질 상파울루주 1부리그 C.A 유벤투스를 이끌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포항 파바레스 ‘축구팬이 뽑은 MVP’

프로축구 포항 스틸러스의 미드필더 파바레스(24)가 축구팬들이 인터넷 투표로 직접 뽑은 ‘2007 K-리그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다.

축구 전문 사이트 ‘사커월드(www.soccer4u.co.kr)’는 4일 “지난달 26일부터 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사커월드 선정 K-리그 대상’ 인터넷 투표에서 포항 파바레스

가 총 1천315표 가운데 430표를 얻어 MVP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파바레스에 이어 경남FC 물품의 주인공 까보레(333표)가 2위에 올랐고, 포항의 ‘만형’ 김기동(154표)이 그 뒤를 이었다.

신인왕 투표에서는 올림픽대표팀 공격수 하태권(수원)이 641표 가운데 482표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수비수 김형일(대전)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골키퍼 부문에서 정성룡(포항·341표)이 1위에 올랐고, 수비수 부문에는 마토(수원·276표), 장학영(성남), 황재원(포항·이상 105표), 김형일(대전·92표), 아디(서울·92표) 등이 차례로 표를 얻었다.

미드필더 부문에서는 파바레스(211표)가 이관우(수원·171표), 김기동(118표), 김두현(105표)과 함께 이름을 올렸고, 공격수에는 까보레(395표)와 모파(성남·263표)가 선정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양용은 Q스쿨 6위 차지 PGA 투어 입성

박진 선수도 풀시드 확보

“연습 그린에서 한국말로 떠들었다면 좋겠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골프 스타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외로움’으로 토로하며 갈망했던 소원이 풀리게 됐다.

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인터가든의 오픈지카운티내셔널골프장에서 막을 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퀴리파인스콜에서 ‘바람의 아들’ 양용은(35·시진·테일러메이드)과 재미교포 박진(30)이 상위권 성적으로 내년 투어 카드를 획득했다.

양용은은 크록트켓 코스(파72)에서 치른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2라운드 합계 20언더파 412타로 공동 6위에 올랐고, 박진은 4타를 줄여 합계 22언더파 410타로 4위를 차지해 상위 25명에게 주는 내년 PGA 투어 전경기 출전권을 받았다.

양용은과 박진은 메이저대회와 출전 선수가 80여명에 그치는 일부 특급 대회를 뺀 ‘풀필드 대회’를 대부분 출전할 수 있고 분기마다 성적에 따라 출전할 수 있는 대회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양용은과 박진이 합류하면서 내년에는 PGA 투어에 최경주,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 나상우(23·코브라골프), 그리고 재미교포 앤서니 김(21·한국 이름 김하진) 등 모두 6명의 ‘코리언’이 뛰게 됐다.

작년 11월 타이거 우즈, 짐 퓨릭, 레티프 구센 등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을 꺾고 유럽프로골프투어 HSBC챔피언스를 제패, 단숨에 세계랭킹 30위권으로 도약하며 ‘제2의 최경주’로 각광받던 양용은은 지난해 미역을 먹었으나 두번째 도전에서 꿈에 그리던 PGA 투어에 발을 내디뎠다.

양용은은 지난해 세계랭킹 상위권 자격으로 메이저대회를 비롯한 PGA 투어 특급 대회에 몇차례 출전했으나 준비가 될 뻔 한 탓에 컷오프와 하위권을 맴돌았고 유럽프로골프투어에서 활동하며 퀴리파인스콜 재수를 대



양용은 PGA 투어 입성

올 남자 골프賞 김경태 ‘씩쓸이’

올해 한국프로골프에 ‘슈퍼투키 돌풍’을 일으킨 김경태(21·신한은행)가 앙드레 김골프 2007 한국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에서 트로피 3개를 안았다.

4일 오후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경태는 최우수선수(MVP)에 해당하는 씨티은행 마스터카드 대상을 받았다. ‘씨티은행 마스터카드 대상’은 1년 동안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상으로 신인이 이 상을 받은 것은 김경태가 처음이다.

김경태는 또 가장 두드러진 성적을 올린 새내기에게 주어지는 ‘하나은행 명출상’도 차지해 대상과 신인왕을 함께 받는 진기록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시즌 최저타수를 기록한 선수 가 받는 ‘덕춘상’까지 김경태에게 돌아가 시상식이 진행되는 동안 세비이나 무대도 불러내왔다.

3일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대상 시상식 때 4개의 상패를 받은 연세대 후배 신지애(19·하이마트)가 부럽지 않았다.

여자프로골프협회와 달리 프로골프협회는 상금왕과 다승왕에 따로 상을 주지 않아 김경태는 사실상 5관왕에 오르기도 트로피는 신지애보다 2개 적은 3개만 받았다.

지난해 도하아시아게임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해 2관왕에 오른 뒤 올해 프로 무대에 뛰어든 김경태는 개막전과 두번째 대회를 잇따라 제패하는 등 3차례 우승을 거둬 여자골프에 비해 주목을 덜 받던 남자프로골프의 중흥을 이끌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골프·연도 회원권개 전환기임

특별리 회원권

골프 장 시세(연도)	골프 장 시세(연도)
광 주 3,500	광주 900 5,200
남 광 주 4,300	파인힐스 12,200
승 주 8,200	일 평 7,400

상당 분의 (062)351-0095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